

'가브리엘 멀티 골'...개막 2연승 질주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2라운드 광주FC와 강원FC의 경기에서 광주FC 가브리엘이 0대1로 뒤진 후반 3분 동점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막강화력' 폭발 광주FC, 강원FC전 4대2 역전승

1분 만에 선제골 내주고도 후반에만 4골 터뜨리며 완승 '시즌 2경기 3골' 가브리엘, '이정효 축구' 해결사로 우뚝

광주FC가 막강한 화력을 선보이며 개막 후 2연승을 질주했다. 광주는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2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해결사' 가브리엘의 멀티 골, 이견희의 역전골, 최경록의 썩기골을 앞세워 4대2 승리를 거뒀다. 지난 2일 홈 개막전에서 FC서울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광주FC는 2연승으로 리그 선두에 나섰다. 광주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양민혁에게 선제 골을 내주며 흔들렸다. 강원인의 압박에 흔들리자 이정효 감독은 전반 25분 가브리엘을 투입,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개막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가브

리엘을 중심으로 살아난 광주의 공격 라인이 강원을 거세게 압박했지만 강원인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광주가 후반 시작과 함께 최경록을 투입하며 전술 변화를 시도했다. 이정효 감독의 구상대로 광주가 후반 3분 엄지성의 킥백에 이은 가브리엘의 왼발 슈팅으로 승부에 균형을 맞추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후반 16분에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강원 수비진영에 패스미스를 이끌어 냈고, 문전 왼쪽으로 쇄도한 이견희가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3분 뒤 강원의 거센 공격을 막던 포

포비치가 파울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줘 경기는 2대2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팽팽한 대결이 이어졌고 집중력에 앞선 광주가 후반 28분 추가 득점했다. 정호연이 올린 크로스를 가브리엘이 헤더로 연결, 3대2로 리드를 잡았다. 광주는 이희균, 이견희를 빼고 허을 투입,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후반 추가시간 광주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엄지성이 상대에게 얼굴을 가격할 땀했다. 비디오 판독(VCR) 결과 결국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최경록이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광주의 4대2 승리를 완성했다. /박희중 기자

KIA, 시범경기 NC전 '1승 1패'

화력은 'OK' 수비는 '아직'

KIA 타이거즈는 9-1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 원정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지난 9일 열린 시범경기 첫 경기에서 10대3 승리를 거둔 KIA는 10일 경기에서는 4대6으로 패했다. 전날 홈런 5개의 화력을 선보인 KIA 타선은 이날 단 6안타(1홈런)에 머무르며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다. 특히 NC 새 외국인 선발투수 하트에게 4회까지 7삼진 당하며 2안타에 그쳤다. 그나마 황대인이 3타수 2안타(1홈런) 3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3루수로 출전했던 김도영도 3타수 2안타를 기록했으나, 4회 수비 실책으로 역전의 빌미를 제공해 아쉬움을 삼켰다. KIA 선발투수 윤영철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황동하는 2와 3분의이닝 동안 4피안타 3볼넷 3삼진 3실점으로 패전의 멍에를 안았다.

선발 윤영철은 2와 3분의 2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3삼진 2실점을 기록했고, 임기영(1실점)과 곽도규, 전상현이 1이닝씩 책임지며 투구 컨디션을 점검했다. KIA가 2회초 황대인의 홈런으로 2대0 앞서나갔다. 1사 1루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황대인이 NC 선발투수 하트의 145km 직구를 통타,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전날 대타로 나와 2타수 무안타의 부진을 만회하는 시원한 홈런이었다. 하지만 마운드가 흔들린 KIA가 3회 동점을 내줬다. 4회에는 실책과 폭투까지 나오며 3점차 역전을 허용했다. 6회에도 추가점을 내주며 2대6으로 점수차가 벌어졌다. 반격에 나선 KIA는 7회 무사 2루에서 황대인의 적시타로 한점을 만회했다. KIA는 9회 마지막 공격에서 김호령과 이유영의 연속 안타로 1사 1루 상



10일 오후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BO 프로야구 KIA와 NC의 시범 경기. 1회 말 KIA 선발 윤영철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을 만들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지만, 1점을 얻는데 그치며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한편, KIA는 전날 최형우와 이유성,

소크라테스, 서건창 홈런포와 김호령의 그라운드 홈런 등을 포함 장단 12안타를 몰아치며 10-3 대승을 거뒀다. /주홍철 기자

김재희, 23번째 생일에 KLPGA 첫 우승

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역전 우승

김재희가 자신의 23번째 생일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우승을 안았다. 김재희는 10일 싱가포르의 타나메라 컨트리클럽 램퍼니스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2024시즌 개막전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김재희는 이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 버디 6개로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

다. 이로써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쳐 2위 방신실을 1타 차로 따돌렸다. 2011년 3월 10일생인 김재희는 생일날 투어 첫 우승을 안는 기쁨을 누렸다. 김재희의 우승은 정규투어 91번째 대회만이다. 김재희는 이날 아마추어 오수민에게 3타 차 뒤진 공동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했다. 김재희는 13번(파4)과 14번 홀(파3)

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 단독 선두에 치고 올라갔으나 끝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하지만 스리의 여신은 김재희 쪽에 있었다. 허비는 17번 홀(파4)에서 걸렸다. 버디 기회를 잡은 방신실은 퍼트가 홀 근처에서 멈추면서 공동 선두에 오를 기회를 놓쳤다. 가까스로 파를 지켰던 김재희로선 패배를 부르는 순간이었다. 오수민은 보기를 적어내 3위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재희가 동료들에게 우승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다. <KLPGA 제공>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 파자 월드랭킹대회 종합우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이 2024 파자 장애인 양궁 월드랭킹대회 및 파리 패럴림픽 쿼터대회에서 개인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옥금은 지난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대회 W1 결승전에서 1조점을 기록하며 체코의 브랜트 로바 테레자(116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2024 파자 장애인 양궁월드랭킹대회 W1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옥금.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제공>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팀 유일한 메달이다. 월드 랭킹대회는 파리 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마지막 쿼터 국제대회로 오는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장애인 국가대표팀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치렀다. 김옥금은 "광주 장애인 양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계훈련을 소화했다. 안형승 감독과 동료들의 응원으로 좋은 결과를 거둬 기쁘다"며 "지금의 경기력을 꾸준히 이어가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금메달을 꼭 따고 싶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이어 "내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광주시, 광주시체육회, 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하나돼 국제양궁장 개·보수는 물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의 성금대회로 자리매김해 광주가 장애인양궁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광주교통공사 유도 이해경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銅'

'한국 여자 유도 경량급 간판' 이해경(28·광주교통공사·사진)이 2024 어퍼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유도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파리올림픽 출전에 청신호를 켜다. 이해경은 지난 8-10일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48kg급 동메달결정전에서 바르가스 레이 페리디(칠레)를 안다리후리기 절반승으로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이해경은 2회전에서 아이마드 버지니아(가봉)에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둔 뒤 8강전에서 라소 에리카(폴란드)를 허리후리기 한판승으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해경은 준결승에서 복병 곤도 미츠키(일본)에게 누르기 한판패를 당하며 동메달결정전으로 밀렸다. /박희중 기자



세계랭킹 24위인 이해경은 이번 대회 동메달로 올림픽 랭킹포인트 350점을 획득하며 순위 상승이 예상된다.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은 국제유도연맹 올림픽 상위랭킹 18위까지 주어지는데, 한국 국가에 1장만 부여된다. 현재 여자부 -48kg급 상위 18위 안에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몽골 등 선수들이 2-3명씩 포진돼 있어 한국은 이해경의 올림픽 출전이 유력하다. /박희중 기자



지난 7일 열린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여자일반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순천시청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시청, 순천만국가정원컵 단체전 우승

결승서 고창군청 3대1 제압 순천시청 유도팀이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를 겸한 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청은 지난 7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고창군청을 매치스코어 3-1로 꺾었다. 김지정, 신채원, 박다솔, 신지영, 양서우가 팀을 이룬 순천시청은 첫 상대인 성동구청을 맞아 신채원이 지도승, 신지영이 한판승, 양서우가 지도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다. /박희중 기자

이어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신지영 기권승 외 전부 무승부하며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는 총복도청의 기권승으로 결승에 올랐고, 마지막 고창군청과의 일전에서 김지정이 한판승, 신채원이 기권승, 신지영이 기권승, 무승부를 기록, 최종 우승했다. 개인전에서는 -63kg급에 출전한 김지정이 은메달을, 신채원(-63kg급)과 양서우(-52kg급)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양호 순천시청 감독은 "안방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며 "이 기세를 이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